

IV

주요 통계

1 과학 기술

Innovate UK 「State of Innovation 2025」 개요

영국 연구혁신청(UKRI) 산하 Innovate UK에서 2,000개 이상의 영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혁신 활동 및 성과, 장애요인 등을 분석하는 연례 혁신 현황 보고서로, 2023년부터 시작

⇒ State of Innovation 2025 보고서는 기업의 활동과 향후 계획 등의 정보를 기업으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설문을 통해 영국의 혁신 현황에 대해 분석

- (배경) 영국은 2025년 Global Innovation Index 순위에서 6위로, 투자 규모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의 혁신 성과를 내고 있으나, 경제적으로는 성장 정체
- (대상) 영국 내 종업원 수 5인 이상 기업으로, 비영리기관 및 공공부문은 제외
 - 혁신 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최고경영진 및 고위 의사결정자를 대상으로 전화 및 온라인 인터뷰 진행
- (조사) 2025년 3월부터 7월까지 총 2,020개 기업 조사
 - 영국의 12개 지역* 및 9개 광범위 산업 부문** 포괄
 - * 런던, 노스이스트, 노스웨스트, 사우스이스트, 사우스웨스트, 웨스트 미들랜드, 이스트 미들랜드, 이스트 오브 잉글랜드, 요크셔 앤 험버, 스코틀랜드, 웨일스, 북아일랜드
 - ** 표준산업분류(SIC) 코드상 ABDE, C, F, G, H, I, K, JLM, NPQRS

⇒ 혁신 활동(Innovation activity)

- 60%는 제품(product) 또는 서비스(service) 혁신 활동을 수행했다고 응답
 - ※ 제품/서비스 혁신 활동 기업 비중: ('24) 56% → ('25) 60%
 - 공정(process) 및 조직(organization) 혁신 활동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남
- 프론티어(frontier) 기업 중 제품/서비스 혁신 수행 비중은 76%
 - ※ 프론티어 기업 중 제품/서비스 혁신 활동 비중: ('24) 68% → ('25) 76%
 - 전년 대비 자사 최초(new to the firm) 혁신을 보고한 기업 비중은 3%, 시장 최초(new to the market) 혁신을 보고한 기업의 비중은 8% 증가
- 기업당 평균 혁신 활동 유형*의 개수는 '23년 2.3개에서 '25년 2.1개로 감소
 - * 제품/서비스, 공정, 비즈니스 관행, 조직, 외부 협력, 마케팅 등 6가지
 - 혁신 수행 기업은 증가하는 반면, 동시에 수행하는 혁신 유형의 수는 감소

⇒ 혁신 결과(Innovation outcomes)

- 효율성 제고, 매출 증가, 이익률 개선, 현금흐름 유지 등 4가지 영역에서 80% 이상의 기업들이 혁신이 중요하다고 응답
- 최근 1년간 기업들의 평균 매출 증가율은 '25년 4.5%로 감소 추세
 - ※ 응답 기업들의 평균 매출 증가율: ('23) 7% → ('24) 5% → ('25) 4.5%
- '25년 혁신 기업의 평균 매출 증가율은 7%인 반면, 비혁신 기업은 0.4%
 - 혁신 활동과 매출 성장 간 강한 연관성이 존재함을 시사
 - 프론티어 기업의 평균 매출 증가율은 9%인 반면, 비프론티어 기업은 3%
- 공정혁신을 수행한 기업 중 63%는 비용 절감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

⇒ 혁신 장벽(Innovation barriers)

- 혁신 기업의 49%는 혁신 활동이 각종 장벽에 가로막혔다고 응답
 - ※ 혁신 장벽이 존재했다는 응답 비중: ('24) 44% → ('25) 49%
 - 기업 규모에 따라 혁신 장벽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중의 격차 확대*
 - * 대기업은 전년 대비 8% 감소, 초소형 기업(micro businesses)은 10% 증가
- 혁신 수행 기업들은 대표적인 혁신 장벽으로 ① 은행 대출 또는 투자 자금 접근성 부족(74%), ② 수요의 불확실성(50%), ③ 규제 및 법·제도(50%), ④ 공공자금 부족(45%) 등을 언급
 - 수요의 불확실성은 기업 규모와 무관한 혁신 장벽으로 간주되지만, 자금 부족 등의 장벽은 소규모 기업에서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남
 - 기업의 26%는 인력 채용 상의 어려움이 혁신 활동을 저해했다고 응답
- 혁신 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기업들은 대표적인 사유로 ① 이미 충분한 수익 존재(47%), ② 혁신에 대한 수요 불확실성(43%) 등을 언급
 - 혁신에 대한 의향이 있으나 이를 실현할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, 보다 많은 기업들을 혁신 생태계로 유입하는데 핵심

⇒ 혁신 촉진 요인(Innovation enablers)

- 기업의 39%는 지난 1년간 어떠한 형태로든 R&D 활동에 참여했다고 응답
 - '23년 이후 결과를 종합하면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R&D 수행 비중이 낮음
 - 대기업은 전년 대비 5% 감소하고 초소형 기업은 5% 증가하였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기업은 초소형 기업 대비 R&D 투자 비중이 2배 이상
 - 프론티어 기업은 전년 대비 R&D 투자한 기업 비중이 9% 증가하여, 모든 기업 유형 가운데 가장 큰 증가 폭을 나타냄



- 기업의 54%는 지난 1년간 기계·설비 또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였으며, 가장 보편적인 혁신 투자 유형으로 확인됨
 -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전년 대비 기계·설비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 비중이 유의미하게 감소
- 특히 출원 또는 라이선싱에 투자한 기업의 비중은 전년 대비 2% 증가
- 시장조사 및 신규 유통·판매 채널 구축에 투자한 기업의 비중은 '23년 대비 5% 이상 증가
- 기업의 42%는 혁신 관련 교육에 대해 투자했다고 응답
 - 교육 부문으로는 직무 특화 기술 교육(32%), 규제·준법 관련 교육(24%), 개인 역량 개발(23%) 등의 순으로 나타남

⇒ 자금조달(Funding)

- 혁신기업의 약 70%는 기업 내부 자금을 활용하며, 10%는 R&D 세액공제 활용
 - '23년 대비 '25년에는 기업 내부 자금 외 보조금, 정부 대출, 은행 대출, 외부 투자사의 지분 투자 등의 활용 비중이 모두 증가
 - 외부 자금을 활용하여 혁신을 추진한 기업 중 자금 부족이 혁신 활동을 저해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'25년 34%로 나타났으며, 프론티어 기업에서는 42%
- 혁신을 위해 외부 자금을 모색하는 기업의 비중은 '23년 이후 지속 증가 추세

⇒ 자문(Sources of advice)

- 기업의 38%는 지난 1년 동안 어떠한 형태로든 외부 자문 경험이 있다고 응답
 - 경영 성장전략(52%)에 대한 자문이 가장 많았으며, 그 외에 디지털 기술, 제품·서비스 혁신, 넷제로 달성 및 환경영향 저감 등에 대한 자문 수요 증가

⇒ 혁신 의향(Innovation intentions)

- 기업의 51%는 향후 1년 내 R&D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
 - ※ R&D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 비중: ('23) 53% → ('24) 47% → ('25) 51%
 - 초소형 기업과 소기업에서는 R&D 투자 의향이 전년 대비 5% 증가한 반면, 대기업은 '24년 85%에서 '25년 71%로 크게 감소
 - 향후 1년 내 R&D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59%는 R&D 투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응답

출처 : 영국 연구혁신청 (2025.12.22.)

<https://www.ukri.org/publications/state-of-innovation-2025/>